특별기고 마(山藥)

1、性 狀

薯蕷科에 속하는 蔓性草本으로서 雌雄異株로 山野에 自生 또는 栽培하는 마가 있다。

그밖에 近似種으로 단풍마…부채마가 있다。

줄기는 길고 가늘며 다른 줄기에 감긴다。 잎은 마주 붙어나고 모양은 길다란 염통꼴인데 끝이 뾰죽하다。 잎자루는 길며 零餘子라는 살눈(肉芽)이 생긴다。 땅속에 굵고 긴 덩이뿌리가 가로 뻗으며 고구마처럼 둥근것도 있는데 물기가 많고 연하다。

겉빛은 品種에 따라 다르나 속은 희다。 이것을 그냥 말리거나 쪄서 말려 약제로 쓰며 날것은 채소로 쓰기도 한다。

生根의 外部는 灰褐色이며 內部는 白色 多肉質로서 處處에 細毛根 및 小疣가 있다。

생약은 外皮를 除去한다음 그대로 말린 乾山藥과 蒸熱하여 乾燥한 증산약의 2種이 있고 맛은 甘淡收斂性이다。

2、產 地

우리나라 各地와 中國、日本等이다。

3、마의 品種 및 特性

마의 品種은 山野에 나는 自然薯가 主宗이나 近來에 와서는 品貴現狀이고 이웃日本에서 채소로 開發한것은 여러 종류인데 大體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長薯群、㉯銀杏群、㉰大和群、㉱大薯群으로 나누수 있고 各群에 아래와 같은 種類가 있다。

①長薯群—年서~德利서 東大和서

②銀杏群~佛掌서~한국 불장서、은행서

③大和群~大和서~伊勢서、豐後서

④大薯群~爲서~白長서 白丸~赤丸等으로… 以上의 各品種中에서 重要한特性을 소개하여 본다。

●自然薯

山과 들에서 自生하는것으로 해마다 씨뿌리에서 새로 뿌리가 생겨서 크며 3~4년 된것을 캐서 약용으로 쓴다。

뿌리는 가늘고 길며 지름이 3cm、길이는 60~70cm 정도되고 겉은 붉으스레하고 속은 아주 희며、찰기가 있고 향기가 높다。

●一年薯

駱駝서라고도 하며 말뚝처럼 길며 목부분은 가늘고 길며 중간부분은 부풀어 있다。 지름이 4~5cm、길이는 60~90cm 정도로 자라며、겉은 연한 갈색이고 속은 물기가 많으나 거칠다。 찰기는 없는편이고 가뭄에는 약하다。 추운지방에 이길수 있고 겉흙이 깊고 가벼운 땅에 잘 자란다。

●德利薯

日本의 磁器병(도꾸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부친 이름 같다。

목부분은 가늘고 끝은 갑자기 굵어서 2~3갈래로 갈라지며 찰기가 있고 질은 좋은 편이다。

●銀杏薯

모양은 은행잎 처럼 납작하고 목부분이 1~2군데 낮은데가 있으나 찰기가 강하고 질이 좋다。

●伊勢薯

겉이 매끈한 편이나 큰 것은 흠이 생기고 빛갈은 연하게 누르스름한 갈색이며 찰기가 많은 편이고 수확량이 으뜸이다。

●爲薯

1942년에 日本의 富村이란 분이 대만에서 본으로 들여왔다하여 爲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한다。 草勢가 強하여 덩굴의 길이가 7m까지 뻗는것이 있으며 줄기나 잎자루에는 날개같은 것이 달려있다。 뿌리의 모양은 대체로 둥근편이고 울퉁불퉁하여 거칠고 보기가 좋지 않으나 무게는 한개가 2kg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찰기가 많으며 맛도 특이하다。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덩이 뿌리가 생겨서 10월이후 찬바람에 다자라는 특성으로 추운지방에서의 재배는 적합치 않으며 간수하기에도 곤란하다。

거두는 時期도 좀 늦은 편이나 10a당 수확량은 놀라울 만큼 4천kg까지 거둘수 있는 品種이다。

●佛掌薯

손바닥 끝으로 납작하여 끝부분이 손가락처럼 갈라져서 있는것이 특징이다。

질은 좋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大和薯

모양이 둥글며 울퉁불퉁한데가 적고 두터운 편이다。 겉에 검은 갈색의 단단한 껍질이 생기는것이 특색이다。

찰기가 강하고 품질이 좋으며 가뭄에는 약하므로 수분이 풍부한 토양을 택하는것이 가꾸기에 적합하다。

4、効 用

滋養強壯 소화약으로서 허약자의 消化不良、蔓性腸炎、遺精處尿、盜汗、神經衰弱、耳鳴、糖尿病等에 쓰인다。

5、栽培現況

上記 品種란에서 말씀한바와 같이 新品種을 재배하여 한약재로 쓰이고 있으나 일부 시중 상인들이 기후나 토질 및 마의 품종마저 모르고 무작정 권장하여 결국은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만 주게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마보담 채소로 쓰이는것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시장개척이 문제가 됨으로 재배회원에게 우수한 신품종인 爲薯같은 품종을 권장하여、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야겠으며 더욱이 재배회원께서는 13개 품종중 종자선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된다는 것을 차재에 첨언하여 둡니다。

가、심는 方法

심는 시기는 보통 4월중순경이 알맞겠으나 各地方에 따라 일찍 심을수도 있다。 다만 山藥은 추위에 약함으로 늦서리에 염려가 없을때 심어야 한다。

뿌리씨 한포기는 40~60g 정도되게 잘라서 초목제를 일일히 묻혀심되 두둑 60cm 간격의 골을타고 15cm 포기사이로 두줄로 심는다。 심고나면 7~8cm 두께로 흙을덮고 짚을 깔아주면 더욱 좋다。 60cm 두둑에 두줄을 심어야 줄기를 올려주기가 쉽고 평당 뿌리씨는 48개로 10a당 1、4、460개의 씨뿌리가 필요하다。

나、가꾸는 方法

마는 零餘子라는 살눈으로 가꿀수 있으나 주로 뿌리를 나누어 심는다。 大和、伊勢같은 품종은 영여자가 생기지 않으나 영여자로 가꾸려 할때는 10월에 살눈이 익어 떨어지기 전에 거두어 간수했다가 이듬해 4월에 심는다。

씨뿌리는 10월에 줄기가 마를무렵 뿌리를 거둘때 충실한 것을 가려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잘라서 심는다。

심은후 5월상순이면 싹이 트고 보통 한포기에 줄기도 하나지만 어떤 莖은 2~3개가 돋아난다。

줄기가 7~10cm정도일때 튼튼한 것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잘라버린다。

10cm정도 자라도 잎이 생기지 않은것은 튼튼한 줄기가 된다。

다、막대 세워주기

30~60cm정도 줄기가 자라면 1m~1.5m 정도의 막대를 세우고 세운막대 끝을 한데 묶고 시렁같은 것을 만들어두면 통풍도 잘되고 충분한 햇빛을 받을수 있어 무성히 자란다。

라、밑거름과 줏거름

각 지방과 土質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보통 10a당 퇴비 1、000kg과 유기복합비료 25kg 3포、용가린 25kg 3포를 쓰고 중거름으로 7월하순에 8—14—12복합을 25kg 3포정도 주면 더욱 좋다。

마、病과 벌레

병으로는 주로 잎에 생기는 갈점병~탄저병 벌레로는 根瘤線蟲이 있다。

①갈저병은 6월하순에 생긴다。

처음에는 잎겉에 노란빛깔의 작은 점이 생기고 그속에 갈색의 죽살같은 점이 나타나서 마치 벌레가 붙은것 같이 보이고 줄기에 번지면 덩굴이 오그러들고 노랗게 변하여 버린다。

이병을 막을려면(영여자로 심은것은 많이 생김으로 따로 심도록 한다) 6월부터 수은보르도액 600배액을 많이 자주 주어야 한다。

②탄저병은 7월중순 부터 생긴다。

처음에는 잎싹위에 갈색의 올파한 작은 점이 생기고 이것이 크면 검은점이 된다。 이병은 보르도액 400~600을 주면 바로 없어진다。

③根瘤線蟲…벌레가 생기면 덩이 뿌리에 혹같은 것이 생기고 수확후 간수할때 섞는것이 많아진다。

이것을 막을려면 토양살충을 반드시 하고 씨뿌리를 심어야 안전하다。 즉 밭의 흙을 완전히 소독을 해야 한다。

바、수 확

영여자로 가꾼것은 2년만에 뿌리로 가꾼것은 그해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전에 줄기와 잎이 시들때 뿌리가 상하지 않게 발한 모통이에서 부터 거두어야 한다。

※이글은 실질적인 재배관리지도상의 참고자료로서 제공되었음。

・제공자 : 충북 진천군 삼부소장 이지웅。

86春季 播種을 爲한… 藥草種子・種苗・種根을

多數 確保하고 需要希望者 및 栽培 初心者들에게 알리오니 何時라도 來訪및 書面 또는 電話上으로 相談하여 주신다면 最善을 다하여 求得協調및 栽培技術 便宜를 提供하겠아오니 많이 活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12월15일

中央共販場 種苗部 白

傘下支部動靜

慶南支部록생회

85년12월3일 昌原市事務所長(김은종) 主管으로 月例록생회 개최

※主要처리事項

○경남지부관하 분사무소 회비 미납분 전액 징수 완결

○규정에 의한 회비미납 공판장에 대한 일괄 정리 조치

○지부 관하 자체 등기에 대한 토의

○자체 록생회 재정비착수등

忠南支部록생회

85년12월11일 충남지부(지부장 문대규) 主管으로 天安市에서 定例綠生會 開催

※本部에서 初送巡訪次 朴萬鍾會長및 總務部長이 參席。

朴會長人事 : 人和團結로서 相互信頼를 造成하고 上下組織間의 紐帶強化로서 協會活性化를 圖謀해 나가자。 그리고 地方別로 關係當局과도 緊密한 協調關係를 維持하여 年道別配定되는 生藥栽培資金을 最大한 活用할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當付하셨다。

※主要처리事項

○종자・종묘・종근등 알선사업에 대한 수요자측 신뢰회복에 최우선

○정확한 시세표의 상호교류 및 전파…본부에도 건의

○록생회 자체의 내실화 증대

江原道支部록생회

85년12월15일 道支部(支部長 송인겸) 主管으로 月例록생회를 春川市에서 開催

1985년도— 會費納付 完結 當付

今年들어 會費納付 實績이 극히 저조하여 協會의 現實的運營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일괄징수가 可能한 市・道 支部長께서는 4/4分期分까지의 관할地域 會費를 可及的 모두 징수 12月30日까지 完納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分事務所別(道支部에서 일괄징수가 不可能한 地域)로는 오는 12月27日까지 各己 中央本部로 送金하여 주실것을 當付드립니다。

※送金口座번호

①은행 : 조흥은행 제기동 지점 : 330—1—059735

②우체국 : 청량우체국 : 010983—000669 10—11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귀하

소값 오름세

소값이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해도 최저시세를 보였던 소값이 지난20일을 전후하여 지역에 따라 마리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오름세를 보여 慶北安東등 일부지방에서는 4백kg짜리 수소가 마리당 1백3만원에 거래됐다。

農資金 8천억

큰소값 1백만원 넘게 備蓄 확대

黃寅性농수산부장관은 14일『내년도에는 영농자금 규모를 8천억원으로 늘려 농어촌의 자금사정을 완화하고、소의 정부비축을 확대、내년 상반기까지는 소값을 적정수준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했다。

黃장관은 이날 KBS TV와의 대담을 통해 소값의 적정수준을 송아지는 35만~50만원、큰소는 1백만~1백20만원으로 본다고 밝히고、『정부는 소값 회복을 위해 產地 소시장을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는등 소값안정대책을 마련、다음주중 발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黃장관은 또 농산물수입 개방문제에 대해『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수입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 減產문제와 관련、쌀 재고량이 많다고해서 減產해야 한다는 주장은 短見이라고 지적하고、정부는 내년에도 쌀생산목표를 올해와 같은 3천8백만섬으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86 全南木浦市事務所(所長 朴順奎) 自體事業 計劃書 紹介

다음에 紹介하는 86生藥栽培 事業計劃表는 小規模이기는 하나 協會산하 分事務所級에서 시도한는 示範케이스가 될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各級分事務所長께서도 이를 參酌하시어 自體계획과 實踐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特히 全南管下 부사무소에서는 종・횡으로 協調하여 相互發展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다 음

86년도 생약 품종 재배 사업 계획서

(全南木浦市生藥事務所)

1、재배품종 = 광활、구기자、길경、독활、박하、방풍、백지、백자인、산약、소열자、오미자、전호、황금、황기。

2、재배장소 = 무안군삼향면 옥암리 773—6동소

3、재배 및 시설용지면적 : 14、000평。

4、사업비 총액 : 55、110、000원 (당해년도 시설비포함)

5.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소요금액	비 고
기본 시설비	관리사 신축비	4,500	관리사 및 창고 60 평
	비닐하우스 시설비	3,000	30 평× 6 동= 180 평
	건조장 시설비	1,670	100 평× 1 동= 100 평
	용수 시설비	5,000	
	계	14,170	
생산비	종자대	3,000	
	제조 및 병충해 약품대	3,000	
	비료대	6,440	토비 및 화학비료
	경운비	28,000	14,000 평 × 1,000 원× 2 회
	인부임	3,500	5,000 원× 700 = 3,500,000
	기타경비	2,000	
	계	45,940	
합 계		60,110	

6. 생산예정

품종별	생산량	단가	금액	비고
광활	300 근	2,200 원	660,000 원	
구기자	200	5,000	1,000,000	4 년후
길경	700	1,800	1,260,000	
독활	200	1,100	220,000	
박하	100	750	75,000	
방풍	300	2,200	660,000	
백지	300	1,800	540,000	
백자인	100	2,700	270,000	4 년후
산약	200	4,500	900,000	
소엽, 자	엽 300 자 80	엽 450, 자 750	125,000, 60,000	
전호	300	1,500	450,000	
황금	700	5,000	3,500,000	
황기	150	2,200	330,000	
오미자	200	4,500	950,000	4 년후
계			11,000,000	

〈2면에서 계속〉

5、肥培管理

定植한 후에는 自然形으로 길러간다。 主枝가 꺾이는 일이 없이 길러서 圓錐形으로 정지할 것이며、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密生하게 되면 間伐할 정도로 그친다。

거름은 매년 가을또는 이른 봄에 바퀴모양 거름주기(輪狀施肥)를 한다。 즉 山茱萸그루를 중심삼아 主枝의 밑동의 지름 8~10배 떨어진 곳을 파고 堆肥、人糞尿、깻묵 등을 주고 물을 줄것이다。

施肥量은 자람에 따라 增施할 것이며 開花結實하게 되면 인산과 칼리 질 거름에 치중할 것이며 웃거름으로 人糞尿、黃安등을 준다。

施肥하는 방법과 거리 역시 자라감에 따라 다르게 해야한다。 큰나무를 옮겨 심으면 2~3년간은 開花結實의 성적이 나쁘다。

3、收穫・調製

定植후 보통 7~8년만에 開花結實을 하게 되지만 從來式으로 심으면 生育과 開花結實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상기한 바와같이 苗木을 심을때 노력과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깊고 넓게 파서 밑거름을 주고 잘 심으면 뿌리 발육이 잘 되어 生育이 왕성하여 結實期가 빨라지는 것이다。

가을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이것을 수확하여 살짝 찌거나 그대로 씨를 받은후 果肉만을 햇볕에 말리어 조제 저장한다。

乾材는 윤택하며 살이 많으며 酸味가 많은 것이 우량품이다。

定植후 7~8年生은 1주당 열매의 수량이 말린 것으로 600~1200g에 불과하지만 每年 수량이 증가되어 20~30년 후에는 生育狀態가 좋은 것은 株當 24~30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